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死강’ 누가 건널까

내일 스페인-포르투갈 4강전

제로톱 vs 호날두 진검 승부

스페인 사비

포르투갈 호날두

유로2012를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허정무 전 한국 대표팀 감독은 이번 대회를 ‘스페인 따라하기’와 ‘타도 스페인’이라고 규정했다.

대부분의 팀이 스페인식 짧은 패스 플레이를 시도하고 있고 빠른 공수 전환, 전진압박을 두려워하며 따라 한다. 심지어 유력한 결승 상대로 꼽히는 독일마저 힘과 조직력에 짧은 패스를 접목해 부드러운 전차군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아트사커 프랑스가 8강전에서 ‘타도 스페인’에 나섰지만 실패 했다. 프랑스는 수비수 드뷔시의 전진 배치와 윙어 말루다의 중원 배치 등 깜짝 카드를 냈지만 스페인의 공격을 막지 못했다. 이제 포르투갈이 선봉에 섰다. 28일 오전 3시45분(한국시각) 우크라이나 돈바스 아레나에서 시작되는 4강전 첫 경기. 객관적 전력이야 스페인이 앞서지만 조별리그 최종전부터 물오른 기량을 과시하고 있는 호날두의 포르투갈도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어 이번 대회 최고의 빅매치를 예고하고 있다.

▲가짜 9번이냐 진짜 9번이냐 = 사상 첫 메이저대회 3연패를 노리는 스페인 델보스케 감독의 플랜A는 ‘제로톱’이다. 최전방 공격수 토레스를 빼고 가짜 9번 파브레가스를 넣어 미드필더 6명으로 공격하는 전술이다. 사비와 이니에스타, 실바를 중심으로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의 힘을 빼고, 밀집 수비의 균형이 깨지는 틈을 노려 파브레가스가 빈 공간을 파고들어 득점을 노린다.

공격에서 마지막 방점을 찍지 못해 제로톱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진짜 9번 토레스를 투입해 후방 침투를 노리는 플랜B. 조별리그 아일랜드전에서 효과를 본 전략이다. 포르투갈이 조직적이고 두터운 수비블록을 자랑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이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도 크다. 가짜 9번과 진짜 9번을 번갈아 쓰는 작전 외에도 페드로와 카솔라를 투입해 공간을 노리는 공격 옵션도 있다.

▲스페인 패스의 달인들 = 현대축구는 패스게임이다. 공을 많이 갖는 팀이 승리할 가능성도 높은 법. 스페인 골키퍼는 가능한 상대진영으로 롱킥을 하지 않는다. 상대진영으로 차면 공을 확보할 가능성은 50% 이하. 스페인이 골키퍼에서 최전방까지 패스게임을 하는 이유다.

조별리그와 8강전 네 경기에서 사비는 423개의 패스를 시도해서 371개를 성공 시켰다. 성공률 88%에 경기당 패스 성공 횟수가 93개에 달한다. 유로 2012 패스 10걸 중 스페인 선수들이 무려 6명. 사비와 알론소, 부스케츠가 1~3위를 점령했고 이니에스타 6위, 라모스 7위, 알바 8위가 뒤를 이었다. 이탈리아의 중원을 이끌고 있는 피를로가 295개 성공률 74%로 9위에 오른 걸 보면 스페인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패스를 했는지, 얼마나 경기를 지배해 왔는지 알 수 있다.

▲포르투갈의 중심이자 희망 호날두 = 호날두는 이번 대회 최고의 슈퍼스타. 중요한 고비마다 득점포를 가동해 포르투갈을 4강에 올려 놓았다. 초반에 단독찬스를 두 번이나 놓쳐 ‘새가슴’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체코전을 계기로 완벽하게 부활해 3골로 득점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다. 유효슈팅 14개로 1위에 골대를 네 번이나 맞힌 것도 호날두 다운 기록이다.

포르투갈은 초반에 승부를 걸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중반 이후엔 스페인의 패스게임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호날두와 나니 양 날개를 이용한 빠른 공격으로 스페인의 뒷공간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호날두는 또한 다득점이 가능한 선수. 라리가에서 한 경기 4골도 넣은 적이 있어 초반에 골이 터진다면 특유의 무회전 킥과 중거리 슛이 더욱 힘을 발할 것이다. 다만 스페인 선수들이 호날두 대처법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점과 라리가에서 바르샤에 유독 약했던 호날두가 바르샤 선수들이 중심인 스페인전에 최고의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호날두의 한솥밥 친구들 = 스페인엔 호날두와 함께 뛰는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많다. 골키퍼 카시야스를 비롯해 센터백 라모스, 수비형 미드필더 알론소와 아르벨로아 등 4명이나 있다. 또다른 센터백 피케도 맨유 시절 호날두와 친하게 지낸 친구다. 이들 모두가 포지션상 좌우를 바꿔가며 공격하는 호날두와 맞설 것으로 보여 결국 호날두는 친구들에 둘러싸인 가운데 자신의 존재감을 시험받는 상황이 됐다.

호날두는 “상대가 스페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특별한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다. 책임감은 있지만 압박감은 아니다. 나는 이런 경기에 익숙해져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스페인의 부스케츠는 “라모스나 아르벨로아 알론소와 같이 호날두를 수비해야 하는 선수들이 같은 팀 동료라고 봐주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또 “만약 레알 선수들이 감독으로부터 호날두를 거칠게 대하라는 지시를 받는다면 그들은 지시를 따를 것이다. 클럽대항전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 싸우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라고 말했다.

▲선발(예상) 베스트 11

스페인(4-3-3)=카시야스(GK)-알바 라모스 피케 아르벨로아-알론소 부스케츠 사비-이니에스타 파브레가스 실바

포르투갈(4-3-3)=파트리시우(GK)-코엔트랑 페페 알베스 페레이라-모티뉴 벨로소 메이렐레스-호날두 올리베이라 나니

/유제관기자 jkyou@kwangju.co.kr

프로야구 출신 야구인 모임 ‘일구회’

“선수협 올스타전 보이콧 적극 지지”

프로야구 출신 야구인 모임인 사단법인 일구회는 10구단 창단 유보에 항의하는 뜻에서 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회)가 올해 올스타전을 보이콧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26일 밝혔다.

일구회는 성명서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가 지난 19일 선수 수급 문제와 프로야구 질적 하락을 이유로 10구단 창단을 무기한 유보하기로 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자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내년부터 한 팀이 무조건 쉬어야 하는 9구단 체제가 시행되면 장기레이스를 근간으로 한 프로야구의 근본정신이 훼손되고 한국 야구 발전도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구회는 프로야구가 한국 최고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한 것은 구단뿐만 아니라 야구인과 야구팬이 하나 돼 노력한 결과라며 10구단 창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선수협회가 올스타전 불참을 결의한 것은 지극히 온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김동섭 ‘올림픽 문’ 두드린다

광주 FC 오늘 전북과 K리그 18R

런던행 홍명보호 승선 마지막 기회

광주 FC 공격수 김동섭이 런던행을 위한 마지막 테스트를 받는다.

전남 드래곤즈를 상대로 무승 고리를 끊은 광주 FC가 27일 오후 8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 현대와 18라운드 대결을 갖는다.

올림픽대표팀 최종 엔트리가 29일 발표되기 때문에 골잡이 김동섭에게는 런던을 향한 최후의 무대다. 김동섭이 ‘홍명보 키드’로 오랜 시간 대표팀에서 손발을 맞췄지만 박주영이 와일드 카드로 투입될 예정이라서 입지가 많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컨디션은 좋다. 김동섭은 지난 23일 전남과의 K리그 17라운드 경기에서 2골을 몰아넣으며 팀의 6-0 대승을 이끌었다. 특히 전반 28분 룸메이트 김수범의 패스를 받아 만든 터닝슛은 인상적이었다. 킹스컵에서 보여줬던 김동섭의 진가를 다시 보여준 골이었다.

김동섭은 지난 1월 태국과의 킹스컵 1차전에서 전반 42분 환상적인 오른발 터닝슛을 날리며 0-0의 균형을 깼다. 공격본능으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벼락같이 날린 시원한 한방이었다. 이 골과 함께 한국은 3-1의 승리를 거뒀다. 당시의 골감각을 보여주는 듯한 김동섭의 활약으로 광주는 13경기만에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다.

김동섭은 “각오는 항상 같았지만 2년차 징크스 그런 것처럼 부담감이 있었다”며 “대표팀에서 미약하다는 얘기에 신경을 쓰기는 했지만 홍(명보)감독님이 잘 아실거라 생각한다. 리그에서 활약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불러주실 것이다. 부담 갖지 않고 내 플레이를 하면서 팀의 승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북전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26일 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17라운드 베스트 11에 광주 미드필더 이승기와 수비수 박민이 이름을 올렸다.

전남전에서 도움 해트트릭을 기록한 이승기는 ‘광주의 폭풍같은 6골을 만들어낸 연결고리 역할 수행’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이적 후 처음으로 골맛을 보며 2득점을 기록한 박민은 ‘과감한 공격가담과 좋은 위치선정으로 팀 공격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베스트 11의 영예를 안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아리랑하우스의 여름특선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 15,000원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 25,000원~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1등맛집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